

국내외 공장 가동 급냉

대형 TFT-LCD 패널 출하 실적이 2007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시장전문 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뱅크가 월간 대형 TFT-LCD 패널 출하 실적 데이터 리포트를 통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1월 전세계 대형 TFT-LCD 패널 출하량이 전월 대비 20.5% 하락, 2,94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월 이래 가장 최저치의 출하량이며,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1.7%나 하락한 것이다.

세계 LCD 패널 출하 최저 기록

패널 제조사들의 전체 매출액 또한, 38억 달러로 2005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 대비 28.0% 하락, 전년 동월 대비 51.0%나 하락한 수치이다.

한편, 한국 LCD 패널 업체들의 매출 기준 점유율은 작년 11월 44%에서 2008년 11월에는 58%로 크게 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만 업체들의 점유율은 44%에서 28%로 크게 낮아졌다. 패널 제조사들의 11월 업체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으로는 대형 TV 패널의 출하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가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32.5%를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였고, 뒤를 이어 LG디스플레이와 AUO가 각각 25.4%와 12.0%를 차지했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LG디스플레이가 25.8%로 1위를 유지했고, 삼성전자와 AUO가 각각 24.1%, 15.3%로 2,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업체, 시장점유율은 상승

디스플레이뱅크에 의하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대형 LCD 패널 수요 역시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불황 속에서도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패널 공급 과잉이 개선되기에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주요 브랜드 업체들의 패널 구매 패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향후 시장 상황을 전망했다.

일본의 자존심인 샤프가 LCD 패널 시황 악화에 따른 부진을 벗어나지 못해 자국내 LCD 패널

라인 일부의 가동을 중단기로 했다.

세계 5위권 LCD 패널 업체인 샤프가 LCD 라인을 가동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AUO·CMO·CPT 등 대만 LCD 패널 업체들이 가동율과 실적이 바닥에 떨어진데 이어, 샤프마저 수세로 돌아서면서 새해 LCD 패널 시장은 급격한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일본 샤프 LCD 라인 가동 중단

주요 외신에 따르면 샤프는 12월 전세계 휴대폰·노트북 수요 침체에 따라 자국내 2개의 LCD 패널 라인을 내년 3월까지 가동 중단하고, 300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멈추는 라인은 지난 1990년대말 가동된 중소형 패널 공장이다. 최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파나소닉의 LCD패널 자회사인 'IPS 알파 테크놀로지'도 이달부터 내년 1월에 걸쳐 큰 폭의 감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만 LCD 패널 업체들도 출하량이 격감하자 지난달부터 일부 라인들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디스플레이뱅크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AUO와 CMO는 5세대 LCD 패널 라인 각각 1개씩 가동을 중단시켰다. CPT도 4세대 라인 2개중 1곳의 가동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패널업계도 감산

특히 대만 패널 업체들의 가동율이 추락하면서 우리나라 LCD 패널 업체들과의 양산 경쟁서도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대만 LCD 패널 업체들의 출하량 기준 점유율이 지난해 3분기 47.5%에서 올 3분기에는 43.5%로 빠졌다.

이 기간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39.7%에서 43.8%로 뛰어올랐다. 4분기에는 대만의 점유율이 더 떨어진 42.7% 수준에 그치고, 한국은 44.5%로 그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비교적 사정이 나은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만·일본 LCD 패널 업체들은 사실상 '서바이벌 게임'에 직면한 셈이다.

가동율 급감이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그 여파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대만·일본 LCD 패널 업체들의 어려움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생산 라인을 한번 멈추면 다시 가동하기 위해 적어도 두달 이상 걸린다.

대만 LCD 패널 업체들의 경우 대만 정부가 합병이나 자금 지원 등 직간접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샤프의 중소형 라인 가동 중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대만 패널 업계의 어려움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지금 알려진 라인 가동율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여진다.

업계 일각에선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등 국내 LCD 패널 업체들의 일부 라인 가동 중단 가능성도 점치고 있으나, 대만과 비교할 수준은 아니다. 관계자는 연말연시 열흘 정도 사업장 휴가를 검토중인 것은 실질적인 감산 효과를 위한

뜻도 있다. 우리 업체들은 양산 능력 1위의 자존심도 있어 대만과 비교한다면 말 그대로 '생산량 조절' 수준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암운

지난해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암운이 국내에도 짙게 드리워지면서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자 생산라인을 아예 멈추거나 주말특근 등을 중단하며 생산량을 줄이고 있지만 업계는 이번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완성차 업체들은 비상경영 체제를 통해 고비를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종속적 위치에 있는 부품업체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휴업기간이라 월급도 깎였고 막일이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직원이 꺼낸 말이다. 자동차용 시트를 주로 만드는 회사가 완성차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면서 함께 공장을 멈춘 협력업체 중 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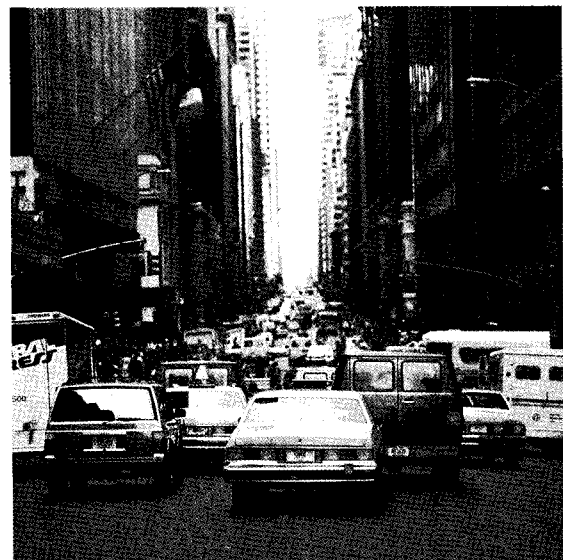
우선 감산 대상이 된 차종에 들어가는 시트 생산을 담당한 공장은 이미 기계가 돌지 않고 있다. 반조립제품 수출물량이 남아 있는 공장에서만 일부 근로자들이 남아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모두 휴업에 들어가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 중 삼분의 일은 한달내내 비자발적 휴가를 떠나야 하고 휴업기간에는 월급도 30% 가량 삭감된다.

이미 지난 10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부분 내보냈고 정년퇴직한 뒤 1년 계약직으로 재채용된 한 직원은 4개월가량 근무하다 최근 직장을

다시 떠나야 했다. 이 회사는 연매출 3천억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이지만 완성차 업체들의 감산이 내년까지 지속되면 불황을 버틸 체력도 고갈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 900여곳에 이르는 1차 협력업체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5천 여곳의 2차 협력업체와 업체수를 집계하기조차 어려운 3차 이후의 협력사에는 이미 부도 내지 폐업의 공포가 현실로 찾아왔다. 납품대금으로 인건비 등을 그때그때 충당하는 영세한 형편에서 조업이 중단되자 인건비와 공장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을 해 버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100명 이하의 근로자로 노동력 의존이 높은 사업구조를 가진 영세 부품업체들은 일감이 없어 아예 문을 닫고 있다. 당장 폐업하지는 않더라도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벌이는 부품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부품업계 상황 더 심각

부품업체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로부터 1월 생산계획을 받아 봤는데 지난달보다 40% 가량 줄어든 물량이었다. 유희 인력이 발생하는데 일단 외국인 연수생 등 비정규직 인력부터 먼저 내보내고 있다. 부품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것은 올해 3분기부터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량 자체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11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작년 11월에 비해 18.2% 감소한 32만8천178대를 생산했다.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3%나 떨어진 7만4천217대를 기록해 2005년 2월 7만2천441대가 팔린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차가 안팔리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감산체제에 돌입했다. GM대우는 부평 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근무일 기준으로 8일간 중소형 라인인 부평 1공장과 군산, 창원 등 모든 공장 가동을 모두 멈춘다. 쌍용차는 창원 엔진 공장과 평택 완성차 공장 가동 중단을 노사가 협의 중이며 르노삼성엔 전 차종 생산을 중단한 데 이어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다.

현대차의 경우 울산 3공장을 제외하고는 현대차 국내 전 공장이 이번 주부터 주말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잔업도 울산 3공장과 1공장만 하고 나머지 전 공장이 중단했다. 기아차도 소하리, 화성, 서산, 광주 등 차량 생산라인의 잔업과 특근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자동차 감산 확대 가능성

자동차 판매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내년에는 감산폭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2008년 11월까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량은 작년 동기보다 4.6% 감소한 357만465대이며 감산이 본격화된 만큼 2008년 전체 생산량은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완성차 업체들은 금년 수요추이를 봐 가며 탄력적으로 생산라인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이다. 불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감산체제가 유지 내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 발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엔진인 이머징마켓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과 함께 신흥시장을 대표해온 브릭스(BRICs) 국가들은 선진국발 금융위기 속에 통화 가치 폭락과 외환보유고 급감, 급격한 성장률 하락에 앓고 있다.

선진국 경제가 기술적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기로에 선 신흥시장의 침체가 위기의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3분의 1로 폭락한 러시아

지난 1998년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까지 갔던 러시아도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 증시는 지난해 5월 고점대비 70%가 폭락한 상태며 환율 방어에 외환은 갈수록 줄어들고 국



부의 원천인 유가가 50달러 선으로 떨어지면서 국가 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연합뉴스 등 매체들이 전하고 있다.

실물경제가 급격히 침체하면서 기업들은 몇 달째 임금 지불을 미루고 있고 대량 해고 사태에 따른 사회 불안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국영은행을 통해 기업에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하지만 실제 기업들은 돈 구경도 못하고 있다. 고유가 덕에 한때 6천700억달러까지 늘어났던 외환보유액도 8월 이후 급감하면서 2천억달러 넘게 소진됐다.

외국인 자금의 이탈로 루블화가 급락함에 따라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섰다. 세계은행은 2009년 러시아 경제성장 전망치를 6.5%에서 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자본 도피와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반영해 러시아의 장기 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단기 등급을 'A-2'에서 'A-3'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도 정부의 금융 시스템 구제노력이 성과를 보지 못했이라며 러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낮췄다.

경제개발 차관도 경기 후퇴는 이미 시작됐고 이것이 "6개월 안에 끝날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라며 장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실제 러시아에선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지난 12월 자산 규모 5위의 모스크바 은행이 정부에 13억 달러 상당의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기업들의 외채 상환 창구역할을 했던 국영 대외경제개발은행도 정부에 125억 달러 상당의 긴급 구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러시아 금융권 구조조정

이번 금융위기로 금융권 구조조정은 자연스롭게 이뤄지고 있다. 우르사 은행과 MDM 은행은 최근 합병에 동의, 알파 은행에 이어 러시아 최대 민간 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인테르고 은행 등 9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위기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난국 타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 유동성 확보와 기업 외채 상환에 2천억달러 이상을 투입한 러시아는 향후 1천800억달러의 추가 유동성 투입의사를 밝혔다. 8년 집권 동안 러시아를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은 푸틴 총리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국민 불안 해소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 장치 마련, 실업수당 인상, 기업세금 인하, 기업규제 완화, 외국

인 고용 인력 축소 등 응급조치도 쏟아내고 있다. 국가 수입 감소를 무릅쓰고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원유 기업을 위해 두달 연속 원유 수출관세를 낮췄다.

금년 상반기까지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시장 혼란이 계속되면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작년말 1달러에 약 28루블인 루블화 가치는 금년 중반 32루블까지 하락하고 내년 35만명의 실업자 발생과 신용 경색에 따른 기업들의 줄도산, 부동산 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분석가들은 금년 3·4분기 이후 자본유입이 재개되고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브라질 무역수지 급감

브라질의 상황도 위태롭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가 브라질의 수출산업을 피폐화하면서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됐다. 무역흑자 기조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8년 11월까지 수출은 1천841억2천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5.2% 증가했으나 수입이 46.3% 늘어난 1천616억9천만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지난해보다 38.6%가 줄어든 224억3천만달러에 머물렀다. 브라질은 2008년 수출 목표를 2천20억달러로 잡고 있으나 수출이 지난 9월을 고비로 급감하면서 목표액도 2천억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2002년 연평균 10%대의 성장세를 구가해온 자동차 시장의 침체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2008년 10~11월 기간 판매량은 25.7%, 생산량은 34.4%, 수출은 28.4%가 감소했고, 30만가 넘는 재고량 쌓여있다. 지난해 초 3년간 23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던 자동차 업체들은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으며, 올해 초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9월 달러당 2헤알 아래서 거래되던 달러화 가치가 2.5헤알을 오르내리면서 환율에도 비상이 걸렸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지난 10월부터 달러화 직접 매도와 외환스와프시장 자금 투입을 통해 환율방어에 나서면서 달러화를 방출했다.

이로 인해 2천70억달러였던 외환보유액은 11월 말 현재 1천950억달러까지 줄어들었으며, 2천억달러 유지가 주요 과제가 됐다. 브라질 정부는 금년 상반기가 금융위기 이래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 경기부양 위해 각종 비상대책 추진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하를 유도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전체 기업 및 개인 신용대출의 40%를 차지하는 국책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이를 전체 은행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시중은행의 지불준비금을 추가로 낮춰 유동성 공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경제가 작년 4~5% 안팎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으로 인해 금년 경제 시계는 불투명하다.

유엔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의 내년 성장률이 0.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브라질 경제가 작년 3.4분기와 4.4분기, 금년 1.4분기를 거치면서 기술적 침체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

주요 산업의 심각한 성장둔화 조짐을 지적하면서 작년 4.4분기 성장률이 제로를 기록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2008년 5.24%, 2009년 2.8%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쓰나미는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빠른 성장세를 구가해온 인도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다.

인도경제 하강 시작

지난 3년간 연 9%대의 고성장세를 구가해온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2008-2009회계연도(2008.4-2009.3) 1.4분기 7.9%, 2.4분기에는 7.6%까지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12월 발표된 10월 산업생산 지수는 작년 동기대비 0.4%, 전월대비 4.8% 하락한 261.5를 기록하면서 15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고점대비 54%나 폭락한 주가와, 연초 이후 23%나 폭락한 루피 가치, 전년 대비 12%나 줄어들면서 7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10월 수출 실적 등은 인도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여실히 반영한 지표들이다.

세계은행은 인도의 200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3%로 제시했고, 2009년 성장률은 5.8%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은행 총재도

이번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7.5~8.0%에서 추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2009년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수출보다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의 체질을 감안하면 금융위기발 세계 경제 침체에 따른 악영향이 다른 신흥시장에 비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아직 신용경색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출도산도 나타나지 않았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세도 여타 신흥시장에 비해 완만한 편이다.

내수의존도 높은 인도경제 외부충격 덜해

신용경색 여파로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3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선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산업의 현실은 앞으로 닥칠 본격적인 침체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제위기에 사상 최악의 테러까지 겹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치러야 하는 인도 정부는 경기 부양에 사활을 걸었다.

인도 정부는 최근 2천억 루피(약 6조원) 규모의 예산지출을 늘리고 각종 세제를 완화해 침체에 빠진 투자와 산업수요를 늘리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을 활성화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돈을 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조만간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농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추가 부양책 발표를 예고했다.